

정책연구 2014-15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변양규 · 이진영



정책연구 14-15

2014. 11.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변양규·이진영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Sectoral Shifts or Aggregate Shocks? A New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2014)』, 『원/달러 환율 변동의 거시경제적 영향(2014)』,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 격차(2014)』 등이 있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미시건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며, 주요 연구보고서 및 논문으로는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2013),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분석과 정책적 함의』(2014), 『The Fragility of Estimated Effects of Unilateral Divorce Laws on Divorce Rates』(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Contributions), 2011), 『The Plateau in U.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hort Analysis』(Industrial Relations, 2014) 등이 있다.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1판1쇄 인쇄 | 2014년 11월 21일

1판1쇄 발행 | 2014년 11월 2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8031-703-5

10,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33928)

CONTENTS

요 약	5
I. 도입	13
II.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16
1. 비교 방법	16
2. 비교 결과	17
(1)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17
(2) 연간 근로시간	20
(3) 고용률, 경황율, 실업률	22
III.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32
1. 비교 방법	32
2. 개별 자료의 비교	35
(1) 고용보호	35
(2)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36
(3)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개별 자료	38
(4) 주성분분석 결과	40
IV. 시사점	45
참고문헌	48

[표 1] OECD 회원국 및 가입년도	15
[표 2] 주성분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41

[그림 1] 한국과 OECD 고용선진국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4
[그림 2] 국가별 생산가능인구(OECD 회원 34개국)	17
[그림 3] 국가별 경제활동인구(OECD 회원 34개국)	18
[그림 4] 국가별 취업자 수(OECD 회원 34개국)	19
[그림 5] 국가별 연간근로시간(OECD 회원 34개국)	20
[그림 6] 연령별 노동시장지표	22
[그림 7] 주당평균 근로시간	28
[그림 8] 단시간·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중	29
[그림 9] 장기 실업률	31
[그림 10] 정규직 및 임시직 고용보호지수(OECD 회원 34개국)	36
[그림 11]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37
[그림 12]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개별 자료	39
[그림 13] 유연성 및 안정성(1998년, 2013년)	42
[그림 14]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1998년~2013년)	44
[그림 15] OECD 고용선진 7개국과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황율(2012)	45



I. 도입

▶ 고용선진국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제기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OECD 국가와의 노동시장 비교가 정책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한국의 201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2%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약 7.1%p 밖에 낮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고용선진국¹⁾(7개국) 평균(68.3%p)보다는 무려 13.1%p 낮아 여성의 고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OECD 34개국 평균과 비교 시,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49.3%)은 OECD 평균(47.2%)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
 - 그러나 OECD 고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고용선진국의 평균(54.4%p)에 비해 5.1%p나 낮은 상황

▶ OECD 고용선진국과 노동시장 성과 비교에 대한 fact를 제공하고자 함.

- 신규로 OECD에 가입한 일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를 제시
 -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고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고용선진국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시도
- 또한,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도 비교하고자 함.

1)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며 인구도 1,000만 명 이상인 7개국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설명되어 있다.

II.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모두 OECD 회원국 중 8~9위권이나,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다는 사실은 한국이 OECD 고용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동력 총량 보유국임을 의미
 - 한국과 고용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약 2,274만 명,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약 1,607만 명, 취업자 수 격차는 약 1,412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고용선진국 중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와 유사한 규모
-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7.6%로, 고용선진국 평균 81.1%에 근접
 - 한국의 15~64세 남성고용률은 74.9%로, 고용선진국 평균 75.4%에 거의 근접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15~64세 여성경활율은 55.2%로, 고용선진국 평균 68.3%에 크게 못 미침.
 - 마찬가지로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53.5%로, 고용선진국 평균 63.7%에 크게 못 미침.
-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비슷하거나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에 거의 근접
 - 한국의 25~54세 남성고용률은 87.8%로,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 오히려 높음.
 - 반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은 62.8%로, 고용선진국 평균 76.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25~54세 여성고용률은 61.2%로, 고용선진국 평균 71.7%에 비해 크게 낮음.
- ▶ 한국의 5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5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9.6%로, 고용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 높음.

▪ 한국의 55~64세 남성고용률은 77.2%로, 고용선진국 평균 69.0%에 비해 높음.

- 반면, 한국의 55~64세 여성경활율은 50.2%로, 고용선진국 평균 57.2%에 비해 약 7%p 낮음.

▪ 또한, 한국의 55~64세 여성고용률은 49.3%로, 고용선진국 평균 54.4%에 비해 5%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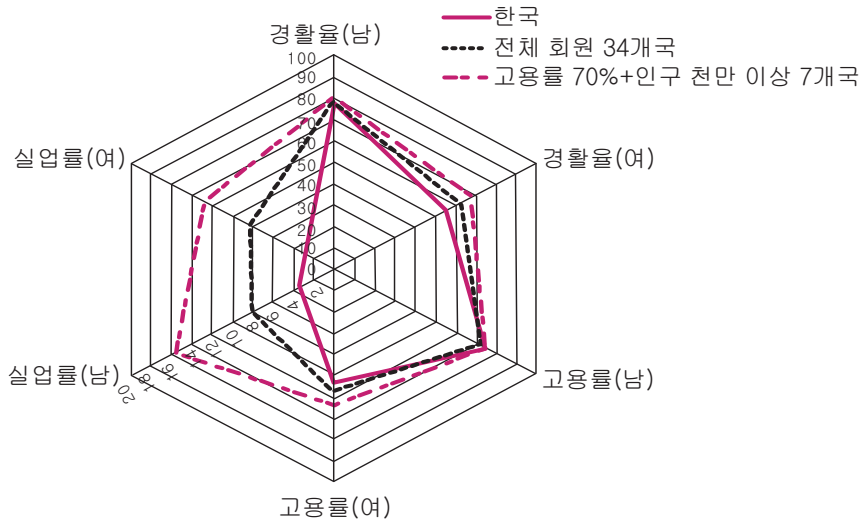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경활율은 2012년 현재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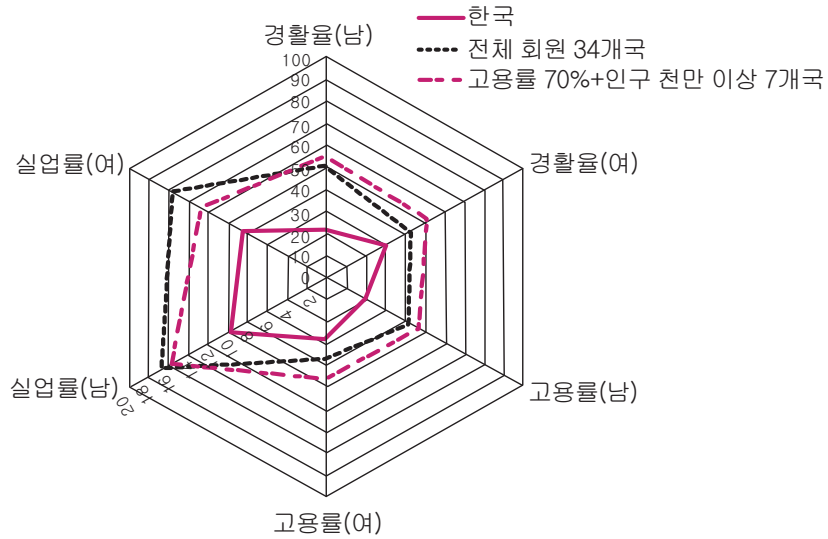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고용률은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연령별 노동시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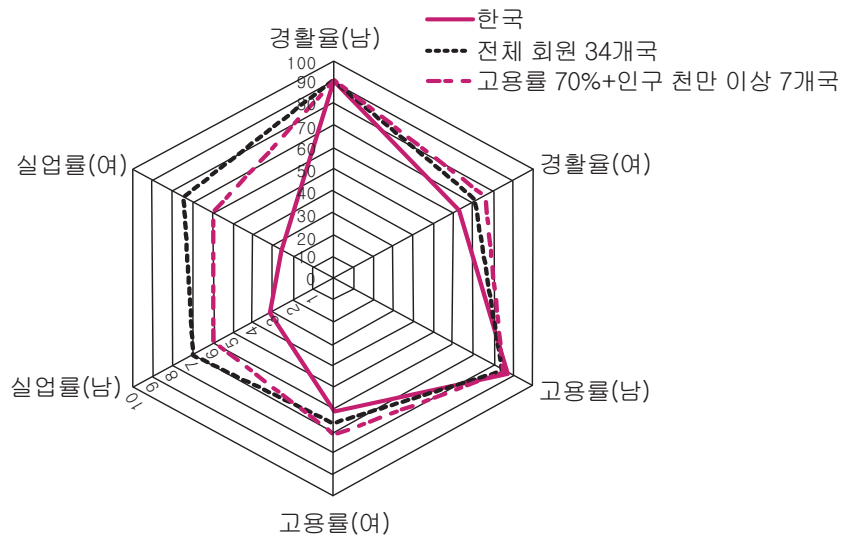
A. 연령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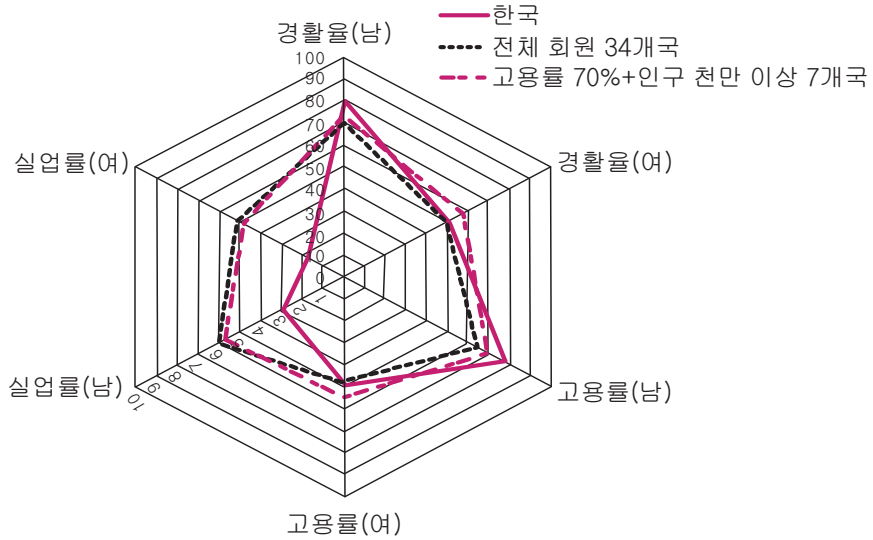
B. 연령 15~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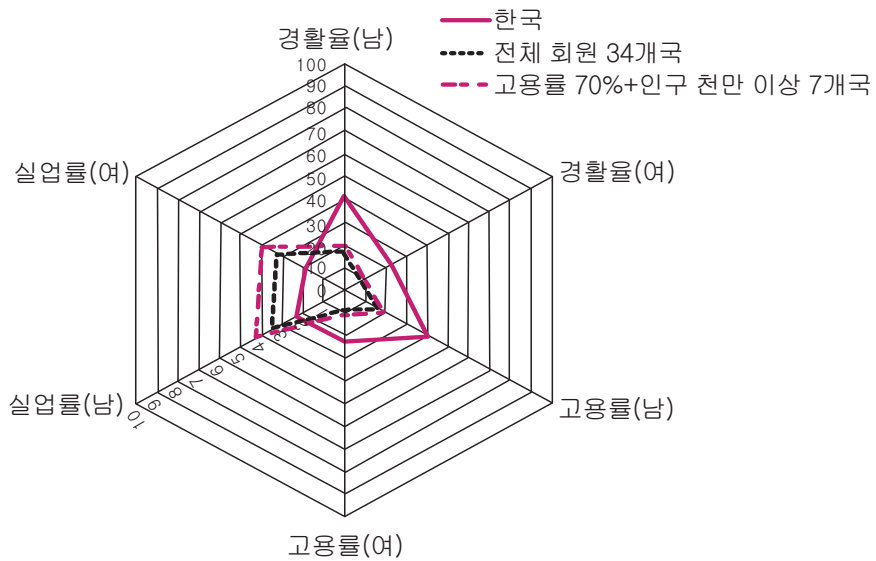
C. 연령 25~54세



D. 연령 55~64세



E. 연령 65세 이상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 고용선진 7개국의 노동시장 현황에 비추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은 (1) 25~54세 여성의 낮은 경활율, (2)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경활율, (3) 낮은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임.

-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62.8%)은 고용선진국(76.2%)에 비해 약 13%p 낮음.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남녀경활율은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 한국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15.0%)은 고용선진국(28.2%)에 비해 약 13%p 낮음.

III.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 ▶ 주성분분석 결과, 1998~2013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개선은 미미한 상황

-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 네덜란드의 경우 안정성이 약간 하락하는 대신 유연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아일랜드는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 그 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도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낮으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 안정성은 소폭 향상된 반면 유연성은 크게 하락하여 프랑스,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권
 - 특히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지난 15년간 안정성의 향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의 개선이 미미함.
- 상대적 고용보호의 상승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가 유연성 및 안정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개별 자료의 변화에 의하면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의 상승이 유연성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됨.
 - 또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여전히 부족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I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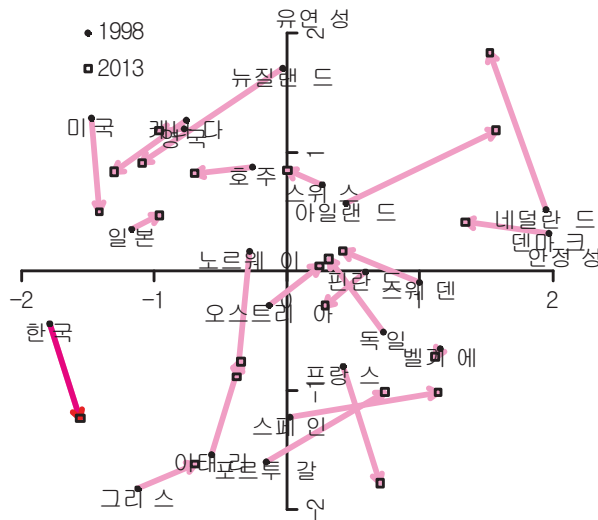
- ▶ OECD 고용선진국의 노동시장 현황에 비추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은 여성 및 고령층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소득취약 노인가구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의 확대,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마련 등 취약점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11~13%p 낮음.
 - 이는 한국 여성의 경활율이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을 보이기 때문
 -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상기
 - 두 번째 취약점은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경활율
 - 이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의 증가²⁾와 청년층의 질 낮은 일자리 기피현상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채워졌기 때문
 - 고령층의 높은 경활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³⁾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소득취약 고령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의 확대 및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세 번째 취약점은 낮은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
 - 한국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약 13%p 낮으며,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
- ▶ 지난 15년간 근로자보호를 위해 취해 왔던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만 크게 훼손하고 안정성 개선은 미흡하여,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OECD 주요국 평균으로부터 하락하여 2013년에는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상황

2) 이진영(2014), “소득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슈보고서

3) 이진영(2014), “소득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슈보고서

-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비교 대상 22개국 중 여전히 최하위
 - 지난 15년간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소폭 향상되었으나 2013년에도 여전히 OECD 22개국 중 최하위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유연성이 크게 하락했으며 안정성 개선도 미흡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다양한 근로형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어 유연성 하락
 -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시행했으나 풍선효과로 인해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하락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 개선은 미흡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의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정책 필요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 (1998년~2013년)]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바탕한 저자의 주성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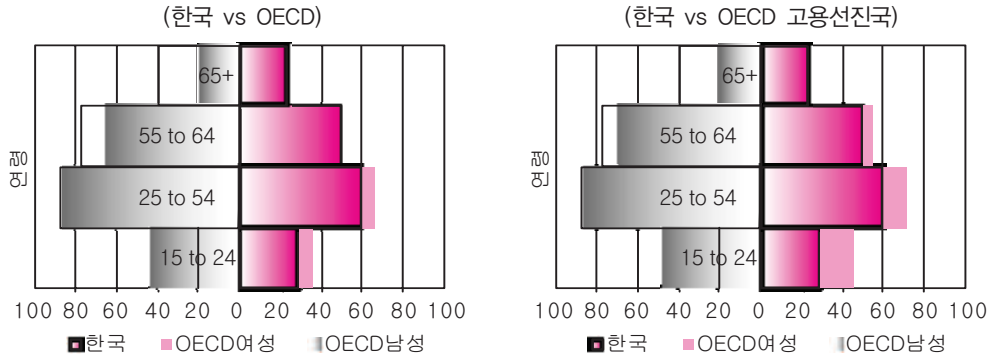
I. 도입

▶ 고용선진국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제기

- 고용률 70% 달성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중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OECD 국가와의 노동시장 비교가 정책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성고용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201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2%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약 7.1%p 밖에 낮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고용선진국⁴⁾(7개국) 평균(68.3%)보다는 무려 13.1%p 낮아 여성의 고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OECD 34개국 평균과 비교 시,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49.3%)은 OECD 평균(47.2%)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
 - 그러나 OECD 고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고용선진국의 평균(54.4%)에 비해 5.1%p나 낮은 상황([그림 1] 참조)
 - 25~54세 여성의 고용률(61.2%)도 OECD 평균(66.3%)과 비교할 경우 5.1%p 낮지만 고용선진국 평균(71.7%)과 비교할 경우 무려 10.5%p 낮음

4)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며 인구도 1,000만 명 이상인 7개국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1] 한국과 OECD 고용선진국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OECD Stat

▶ OECD 고용선진국과 노동시장 성과 비교에 대한 fact를 제공하고자 함.

- 신규로 OECD에 가입한 일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과의 비교가 필요
 - 1973년 뉴질랜드 가입 시까지 이미 가입한 OECD 원조 회원국은 24개국([표 1] 참조)
 - 그 이후 1990년 멕시코의 가입을 비롯하여 한국 및 다수의 동구권 국가들과 이스라엘, 칠레 등이 가입하여 OECD 전체 회원국은 현재 34개국
 - 그러나 최근에 가입한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는 원조 가입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
 - 또한 일부 원조 국가들도 노동시장 규모가 우리에게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가 부적절
-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은 고용선진국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제공하고자 함.
 -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높고 노동시장 규모도 큰 일부 고용선진국을 선별
 - 이들 국가와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정확한 사실을 제공코자 함.

[표 1] OECD 회원국 및 가입년도

#	국명	가입일시	#	국명	가입일시	#	국명	가입일시
1	CANADA	1961/4/10	13	GERMANY	1961/9/27	25	MEXICO	1994/5/18
2	US	1961/4/12	14	GREECE	1961/9/27	26	CZECH REP.	1995/12/21
3	UK	1961/5/2	15	SWEDEN	1961/9/28	27	HUNGARY	1996/5/7
4	DENMARK	1961/5/30	16	SWITZERLAND	1961/9/28	28	POLAND	1996/11/22
5	ICELAND	1961/6/5	17	AUSTRIA	1961/9/29	29	KOREA	1996/12/12
6	NORWAY	1961/7/4	18	NETHERLANDS	1961/11/13	30	SLOVAK REP.	2000/12/14
7	TURKEY	1961/8/2	19	LUXEMBOURG	1961/12/7	31	CHILE	2010/5/7
8	SPAIN	1961/8/3	20	ITALY	1962/3/29	32	SLOVENIA	2010/7/21
9	PORTUGAL	1961/8/4	21	JAPAN	1964/4/28	33	ISRAEL	2010/9/7
10	FRANCE	1961/8/7	22	FINLAND	1969/1/28	34	ESTONIA	2010/12/9
11	IRELAND	1961/8/17	23	AUSTRALIA	1971/6/7			
12	BELGIUM	1961/9/13	24	NEW ZEALAND	1973/5/29			

주: OECD 가입 순서로 나열되었으며, 음영으로 처리된 국가는 현재 기준 고용률 70% 이상인 15개국, 굵은 글씨로 표시된 국가는 고용률 70% 이상이며 인구 천만 명 이상인 국가
 자료: OECD 홈페이지

▶ 또한,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도 비교하고자 함.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연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격차 변화,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 지출규모 변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요인 발생
 - 또한 입법적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도 변화하였고, 그 결과 임시직 비율, 장기실업률 등이 변화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화 추이를 OECD 주요국과 비교
 -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성과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 추이를 비교할 필요



II.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1. 비교 방법

▶ OECD 국가 중 고용선진국의 가중평균과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를 비교

-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높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고용 선진국을 선별
 - 1960~70년대 가입 원조 OECD 24개국 중 2012년 기준 고용률이 70% 이상인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5개국
 - 이들 국가 중 아이슬란드는 15~64세 고용률이 무려 80.2%이나 15~64세 인구는 20만 2천 명에 불과하고 노르웨이도 고용률은 75.8%이나 15~64세 인구는 331만 4천 명에 불과
 - 이들 국가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 2012년 기준 15~64세 고용률이 70% 이상이며 15~64세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국가 7개국을 선정
- 이들 7개국을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간주하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
 - 예를 들어, 비교 기준인 OECD 고용 선진국의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각국 인구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각국 고용률의 가중평균

$$\begin{aligned} \overline{ER} &= \frac{\sum_{i=1}^n emp_i}{\sum_{i=1}^n pop_i} \times 100 = \sum_{i=1}^n \left(\frac{emp_i}{\sum_{i=1}^n pop_i} \times 100 \right) = \sum_{i=1}^n \left(\frac{emp_i}{pop_i} w_i \times 100 \right) \\ &= \sum_{i=1}^n ER_i w_i, \quad \text{where } w_i = \frac{pop_i}{\sum_{i=1}^n pop_i} \end{aligned}$$

- 또한, 실업률은 각국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가중치로 하는 각국 실업률의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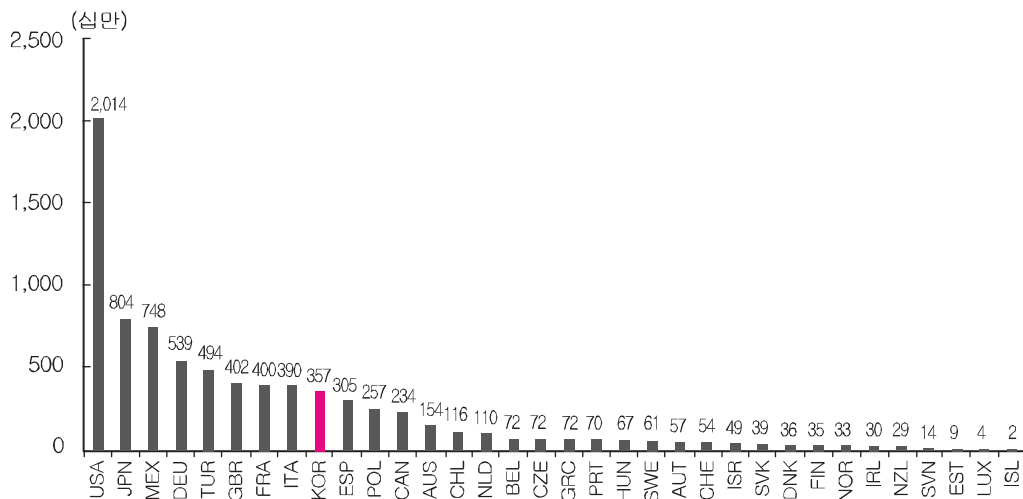
$$\begin{aligned} \overline{UR} &= \frac{\sum_{i=1}^n unemp_i}{\sum_{i=1}^n LF_i} \times 100 = \sum_{i=1}^n \left(\frac{unemp_i}{\sum_{i=1}^n LF_i} \times 100 \right) = \sum_{i=1}^n \left(\frac{unemp_i}{LF_i} w_i \times 100 \right) \\ &= \sum_{i=1}^n UR_i w_i, \quad \text{where } w_i = \frac{LF_i}{\sum_{i=1}^n LF_i} \end{aligned}$$

- 평균근로시간,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각국의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계산
- 고용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횡단면 비교
- 또한, 전체, 성별, 연령별, 성·연령별 그룹으로 비교

2. 비교 결과

(1)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그림 2] 국가별 생산가능인구(OECD 회원 34개국)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 2012년 현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50만 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9위
 - 미국이 2억 14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 뒤이어 일본(8,040만 명), 멕시코(7,480만 명), 독일(5,390만 명), 터키(4,940만 명)가 2위부터 5위를 차지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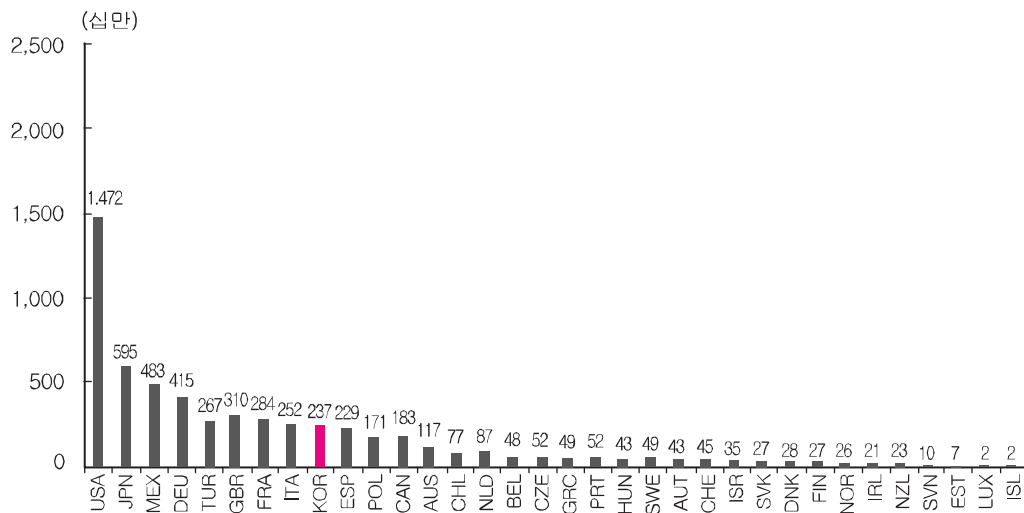
- ▶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 생산가능인구는 약 6,081만 명으로, 2012년 현재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음.

- 고용선진국의 15~64세 평균 생산가능인구는 6,081만 명으로 우리나라(3,565만 명)의 약 1.7배

- 미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억 142만 명이고 일본 8,041만 명 및 독일 5,387만 명인 반면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와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

* 고용선진 7개국은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등 2012년 현재 고용률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가리킴.

[그림 3] 국가별 경제활동인구(OECD 회원 34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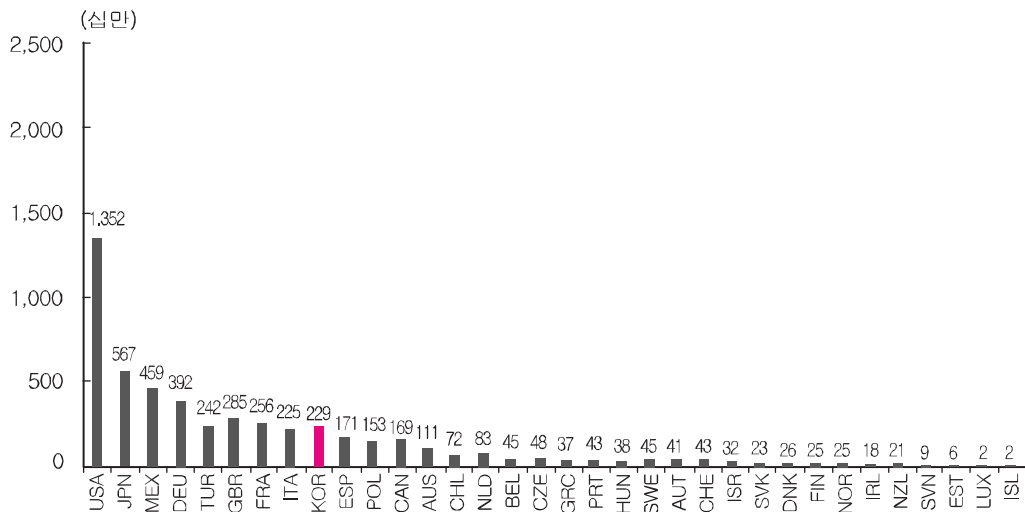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 2012년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370만 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9위
 - 미국이 1억 4,7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 뒤이어 일본(5,950만 명), 멕시코(4,830만 명), 독일(4,150만 명), 영국(3,100만 명)이 2위부터 5위를 차지
 -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 순위는 생산가능인구 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터키와 폴란드, 칠레는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를 의미

- ▶ 고용선진국의 15~64세 평균 경제활동인구는 4,542만 명으로 우리나라(2,368만 명)의 약 1.9배
 - 미국의 경제활동인구는 1억 4,725만 명이고 일본 5,946만 명 및 독일 4,154만 명
 -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와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

[그림 4] 국가별 취업자 수(OECD 회원 34개국)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 2012년 현재 한국의 취업자 수는 2,290만 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
 - 미국이 1억 3,5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 뒤이어 일본(5,670만 명), 멕시코(4,590만 명), 독일(3,920만 명), 영국(2,850만 명)이 2위부터 5위를 차지

-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 순위와 취업자 수 순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터키와 이태리, 폴란드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취업자 규모에서 순위가 1단계 상승한 점은 한국의 취업률이 이태리의 취업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반영
- ▶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 취업자 수는 약 4,228만 명으로, 2012년 현재 한국의 취업자(2,290만 명)는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음.
 - 고용선진국의 15~64세 평균 취업자 수는 4,228만 명으로 우리나라(2,290만 명)의 약 1.8배
 - 미국의 취업자는 1억 3,522만 명이고 일본 5,674만 명 및 독일 3,924만 명
 -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와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
-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모두 OECD 회원국 중 8~9위권이나,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다는 사실은 한국이 OECD 고용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동력 총량 보유국임을 의미
 - 한국과 고용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약 2,274만 명,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약 1,607만 명, 취업자 수 격차는 약 1,4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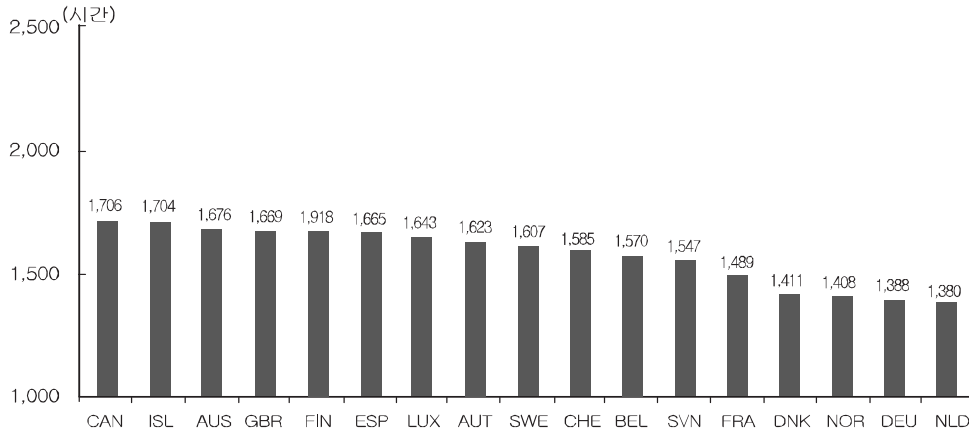
(2) 연간 근로시간

[그림 5] 국가별 연간근로시간(OECD 회원 34개국)

A. 1위~17위



B. 18위~34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 멕시코에 이어 최고 수준

- 멕시코가 2,237시간으로 1위를 차지. 뒤이어 그리스(2,037시간), 칠레(2,015시간), 폴란드(1,918시간)가 3위부터 5위를 차지.
- OECD 회원국 중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규모가 1위인 미국과 2위인 일본의 연간근로시간은 각각 1,788시간과 1,735시간으로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
- 연간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는 1,380시간의 네덜란드
- 노동력 규모와 연간근로시간 간의 특별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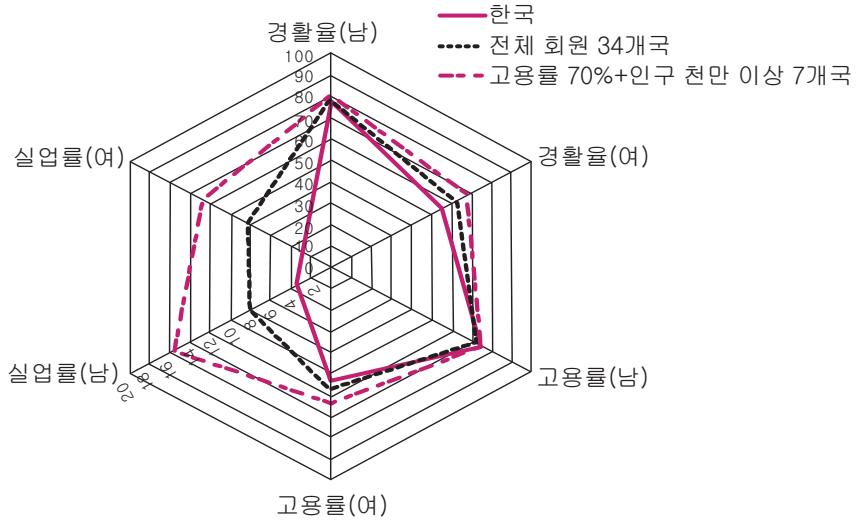
▶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은 약 1,610시간으로,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553시간 많음.

- 이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 년 근무일수가 약 69일 많은 것과 같은 수치임.
- 한국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고용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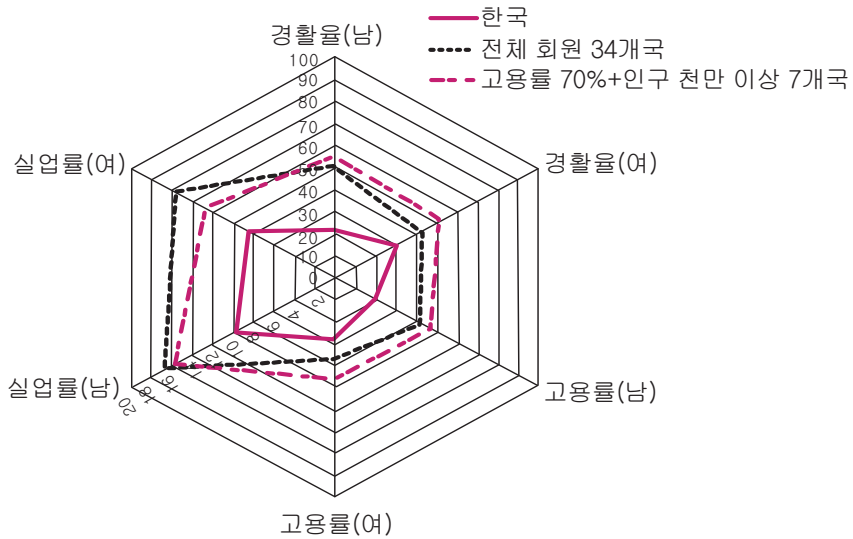
(3) 고용률, 경활율, 실업률

[그림 6] 연령별 노동시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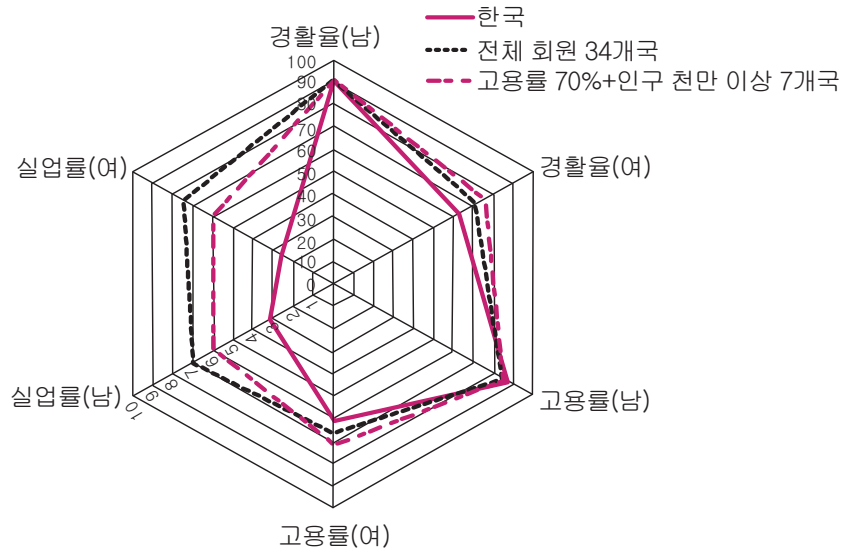
A. 연령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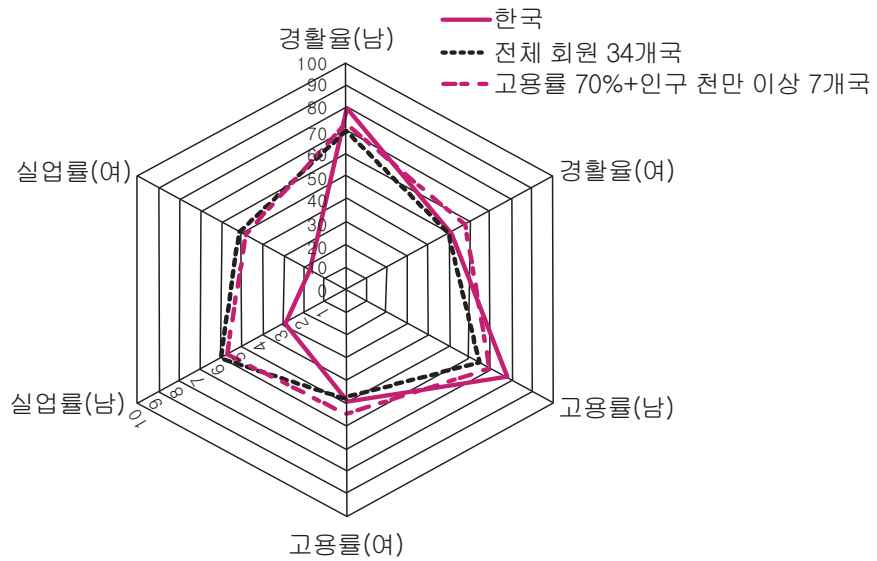
B. 연령 15~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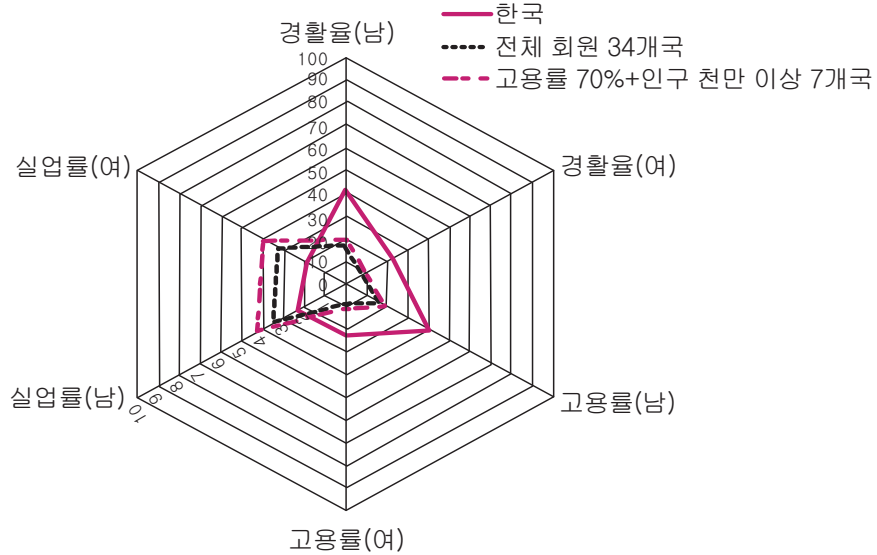
C. 연령 25~54세



D. 연령 55~64세



E. 연령 65세 이상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7.6%로, 고용선진국 평균 81.1%에 근접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3.5%p 낮음.
 - 그러나 한국의 남성경활율은 OECD 평균 79.7%에 비해서도 약 2.1%p 낮은 수준임.
- 한국의 15~64세 남성고용률은 74.9%로, 고용선진국 평균 75.4%에 거의 근접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0.5%p 낮음.
 - 이는 OECD 평균 남성고용률인 73.2%를 약 1.7%p 웃도는 수준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15~64세 여성경활율은 55.2%로, 고용선진국 평균 68.3%에 크게 못 미침.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3%p 낮음.
 - OECD 평균 여성경활율 62.3%에 비해서도 약 7%p 낮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53.5%로, 고용선진국 평균 63.7%에 크게 못 미침.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0%p 낮음.
- OECD 평균 여성고용률 57.2%에 비해서도 약 4%p 낮음.

▶ 한국의 15~64세 남녀실업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한국의 15~64세 남녀실업률은 2012년 현재 각각 3.5%, 3.1%로, 이는 고용선진국 평균인 7.1%, 6.7%에 비해 절반 수준

▶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청년층 남녀경활율 모두 고용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침.

- 한국의 15~2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22.1%로, 고용선진국 평균 55.9%에 비해 약 34%p 낮음.

- 한국의 15~24세 여성경활율은 30.9%로, 고용선진국 평균 53.2%에 비해 약 22%p 낮음.

- 한국의 청년층 경활율이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는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

-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진학률은 한국 68.5%, OECD 평균 58.3%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10위⁵⁾
- 직업전문학교 진학률은 2012년 현재 한국 52.1%, OECD 평균 15.6%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2위⁶⁾

- 고용선진국은 청년층 남성경활율이 여성경활율보다 높은 반면, 한국은 청년층 남성 경활율이 여성경활율보다 낮음.

- 고용선진국의 경우 청년층 남성경활율이 여성경활율보다 약 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여성경활율이 약 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15~24세 남녀실업률 역시 15~64세 남녀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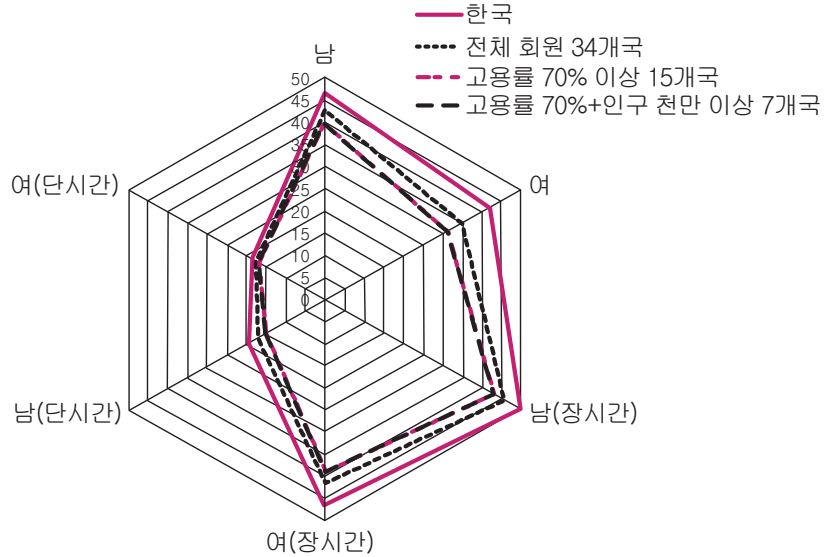
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6)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한국의 15~24세 남녀실업률은 2012년 현재 각각 9.7%, 8.5%로, 이는 고용선진국 평균인 15.6%, 12.8%에 비해 매우 낮음.
-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비슷하거나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에 거의 근접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0.5%p 낮음.
 - OECD, 고용선진국, 한국의 남성경활율 수준이 거의 비슷함.
 - 한국의 25~54세 남성고용률은 87.8%로,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 오히려 높음.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2%p 높음.
 - 반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은 62.8%로, 고용선진국 평균 76.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13%p 낮음.
 - OECD 평균 여성경활율 71.7%에 비해서도 약 9%p 낮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25~54세 여성고용률은 61.2%로, 고용선진국 평균 71.7%에 비해 크게 낮음.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11%p 낮음.
 - OECD 평균 여성고용률 66.3%에 비해서도 약 5%p 낮음.
- ▶ 한국의 25~54세 남녀실업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
 - 한국의 15~24세 남녀실업률은 2012년 현재 각각 3.2%, 2.6%로, 이는 고용선진국 평균인 5.8%, 5.9%에 비해 매우 낮음.
- ▶ 한국의 5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5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9.6%로, 고용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 높음.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7%p 높음.
 -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10%p 높은 수준
 - 한국의 55~64세 남성고용률은 77.2%로, 고용선진국 평균 69.0%에 비해 높음.

-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8%p 높음.
 - 반면, 한국의 55~64세 여성경활율은 50.2%로, 고용선진국 평균 57.2%에 비해 약 7%p 낮음.
 - OECD 평균 여성경활율 49.7%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 0.5%p 더 높음.
 - 한국의 55~64세 여성고용률은 49.3%로, 고용선진국 평균 54.4%에 비해 5%p 낮음.
 - OECD 평균 여성고용률 47.2%에 비해 약 3%p 높음.
- ▶ 한국의 55~64세 남녀실업률 역시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
- 한국의 55~64세 남녀실업률은 2012년 현재 각각 3.0%, 1.7%로, 이는 고용선진국 평균인 5.8%, 4.8%에 비해 매우 낮음.
-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경활율은 2012년 현재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고용선진국의 평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므로, 한국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짐.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고용률은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고용률 역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짐.
-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실업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실업률은 2012년 현재 각각 23.3%, 17.8%로, 이는 고용선진국 평균인 41.9%, 38.6%에 비해 현저히 낮음.
- ▶ 연령대별 노동시장지표의 비교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여성 경활율과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의 경활율과 고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주당평균 근로시간



주: 1) 전체 남녀의 평균근로시간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고, 장시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평균임. 따라서 전체회원 34개국의 평균은 실제로 32개국 혹은 31개국 평균을, 고용률 70% 이상 15개국의 평균은 13개국 혹은 12개국 평균을, 고용률 70%+인구 천만 명 이상 7개국은 5개국 혹은 4개국의 평균을 이용

2) 장시간 근로자(full-time employee)는 전일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part-time employee)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가리킴.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1

▶ 한국남녀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남성의 경우 7시간, 여성의 경우 10시간 많음.

- 한국 남성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6.7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39.9시간, OECD 평균 42시간에 비해 5~7시간 더 많음.

- 한국 여성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1.7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30.8시간, OECD 평균 34.7시간에 비해 7~11시간 더 많음. 고용선진국과의 격차가 남성에 비해 더욱 큼.

▶ 이 같은 성별 격차의 차이는 여성 장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남성 장시간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9.7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43.1시간에 비해 7시간, OECD 평균 42.9시간에 비해 약 7시간 더 많음.

- 반면, 한국 여성 장시간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7.0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39.4시간에 비해 8시간, OECD 평균 41.7시간에 비해 약 5시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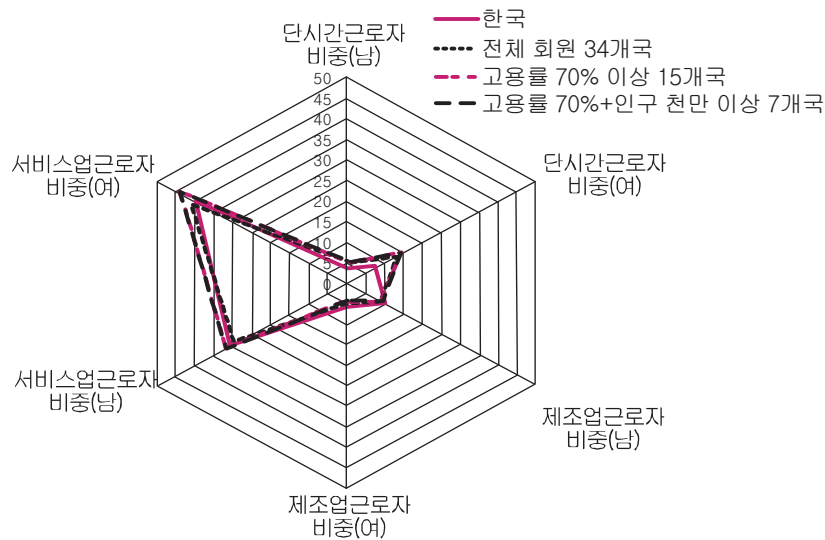
▶ 한국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고용선진국과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16.7시간에 비해 약 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 남성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19.3시간으로 고용선진국 평균 15.0시간에 비해 약 4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은 고용선진국 평균보다 높으므로 OECD평균과 한국을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들음.

[그림 8] 단시간·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중



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의 평균은 7개국(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을 제외한 평균임. 따라서 전체회원 34개국의 평균은 실제로 26개국의 평균을, 고용률 70% 이상 15개국은 11개국의 평균을, 고용률 70%+인구 천만 명 이상 7개국은 6개국의 평균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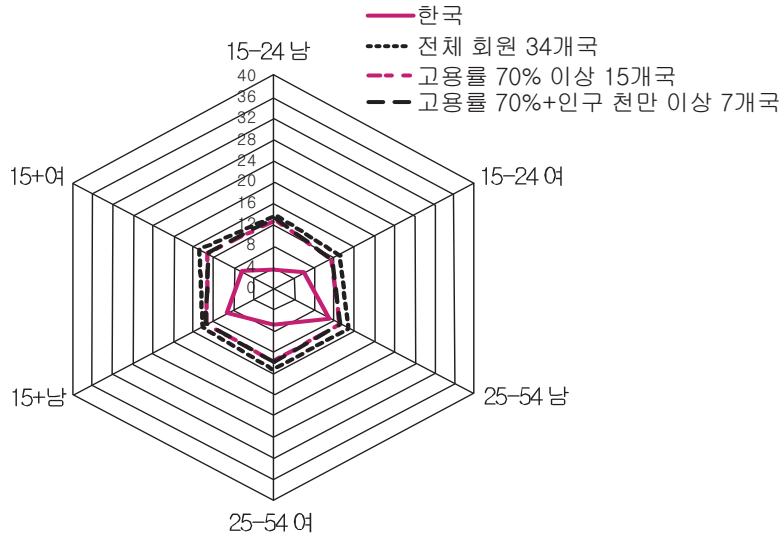
2) 장시간 근로자(full-time employee)는 전일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part-time employee)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가리킴.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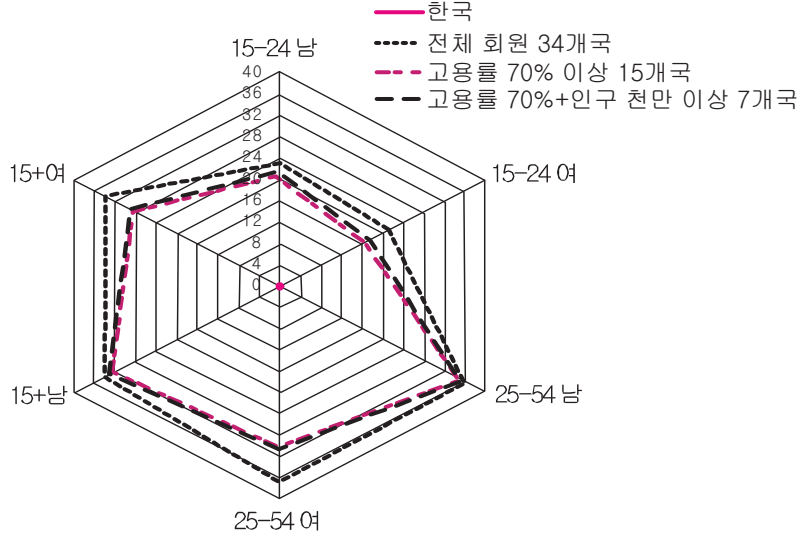
- ▶ 한국 남녀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남성의 경우 6.8% 여성의 경우 15.0%로, 고용선진국의 10.0%, 28.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특히, 고용선진국의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는 점은 고용선진국의 여성경황을 및 고용률이 높다는 점과 여성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한국에 비해 낮다는 점과 관련
- ▶ 한국 남성의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고용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선진국에 비해 더 높음.
 - 한국 남녀의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각각 19.7%, 12.3%, 고용선진국 평균은 각각 19.3%, 9.0%. 남성 비중은 거의 비슷한 반면, 여성 비중은 한국이 약 4%p 더 높음.
- ▶ 한국 남녀의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은 고용선진국과 낮은 수준. 특히 여성의 비중이 더 낮음.
 - 한국 남녀의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은 각각 62.0%, 79.6%, 고용선진국 평균은 각각 63.8%, 86.6%. 남성 비중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2%p 낮고, 여성 비중은 약 7%p 더 높음.
- ▶ 한국 남녀의 장기실업률 역시 앞서 살펴본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고용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남녀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장기실업률은 연령대에 따라 고용선진국에 비해 2~10%p 낮은 수준.
 - 한국 남녀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장기실업률은 15~24세 남녀 각각 3.3%, 5.9%, 25~54세 남녀 각각 11.0%, 7.0%. 이에 비해 고용선진국의 장기실업률은 15~24세 남녀 각각 13.0%, 11.1%, 25~54세 남녀 각각 13.1%, 13.9%
 - 특히 한국 남녀의 1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 미만을 기록하여 고용선진국의 28~30%에 비해 현저히 낮음.

[그림 9] 장기 실업률

A. 6개월 이상 1년 미만



B. 1년 이상



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실업자 비중은 칠레, 스위스를 제외한 평균임. 1년 이상 실업자 비중에서 15~24세 평균은 칠레, 스위스 한국을 제외한 평균이고, 나머지 연령대 평균은 칠레 스위스를 제외한 평균임. 따라서 전체회원 34개국 평균은 실제로 32 혹은 31개국의 평균을, 고용률 70% 이상 15개국의 평균은 실제로 스위스를 제외한 14개국의 평균을 이용.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1. 비교 방법

-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노동시장의 질적·양적 특성과 성과를 나타냄.
 - 유연성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 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 기업의 경우 유연성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민첩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근로자의 경우 유연성은 구직, 일자리 간 이동, 실업과 고용 간 이동, 노동시장 진입 및 퇴출을 적은 경제적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내는 여건을 의미
 - 유연성은 용이한 해고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동시장 구성원 모두가 경제여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안정성 역시 직업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대표적인 안정성 개념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 또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도 포함
 - 또한 실직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도 포함
 - 따라서 안정성은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
 - 유연성과 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특성과 성과를 나타냄.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등 노동시장의 양적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높은 값을 보임.
 - 노동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짐.

▶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

- 주성분분석의 기본 가정은 관찰 불가능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자체는 일종의 잠재변수(underlying variable)로서 관찰이 불가능한 주성분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은 관찰 가능함.
 - 예를 들어 OECD의 고용보호법제(EPL) 지수, 전체고용 중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 실업보험의 소득보장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관찰 가능함.
 - 주성분분석은 주성분이 관찰 가능한 여러 변수들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
- 통계적으로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주성분을 관찰 가능한 변수들로 표현
 - 주성분분석은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가 하나의 자료를 구성할 때 이들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원(dimensionality of a data set)을 줄이는 방법
 - 개별 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되는 주성분의 분산을 극대화하는 가중치를 구하기 때문에 인위적 가중치를 사용한 일반적인 지수(예를 들어,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와는 달리 가중치의 통계적 정당성을 가짐.
 - 특히, 주성분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주성분이 서로 다른 통계적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 가능

▶ 1998년부터 2013년 사이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 및 비교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7개의 변수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유연성 및 안정성 지수 산출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다수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가용한 자료를 선택
 - 주성분분석의 통계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동일한 측면을 중복 측정된 자료를 제외⁷⁾하고 총 7개의 변수를 선택

7) 예를 들어,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적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반영하는 7개 자료를 선택하여 2개의 주성분을 산출
 - 정규직의 고용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 중 정규직의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 지수를 선택
 - 임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중 임시직 개별해고 지수를 선택
 - 다양한 고용계약이 보장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단시간근로가 널리 활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취업자 중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⁸⁾을 선택
 -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실업자의 구직가능성이 낮아져 실업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실업률⁹⁾을 사용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 강화될수록 실업자의 재취업 과정이 원활해져서 고용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¹⁰⁾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
 - 실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클수록 실업자의 생활이 안정적인 점을 반영하기 위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¹¹⁾에 대한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
 - 실업자의 소득흐름이 안정적일수록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보험의 소득보장율¹²⁾을 사용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22개국만 분석
 - 분석대상에는 유럽 16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및 스웨덴)과 비유럽 6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이 포함
 - 일부 동구권 국가와 저소득 OECD 국가의 경우 선택된 자료가 가용치 못하여 제외

경직성지수 및 해고비용지수는 OECD의 노동보호지수(EPL)와 유사한 측면을 나타낸다.

- 8) OECD가 각국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공통정의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는 제1직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호주 및 일본의 일부 부족한 자료의 경우 각국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 9) 장기실업률은 실업자 중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 10) OECD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훈련, 고용유인정책, 고용보조,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창업유인정책 등 OECD 분류번호 20부터 70까지가 포함된다.
- 11)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실업자의 소득보전 프로그램, 실업보험, 조기퇴직지원책 등 OECD 분류번호 80부터 90까지가 포함된다.
- 12) OECD에서 발표하는 총소득보장률(gross rate of replacement)을 선택하였음. 이는 실업 시 실업급여 및 실업보험이 보장하는 기존 임금 대비 비율을 나타내며 평균근로자 소득의 67% 및 100%를 별면서 미혼이거나 가구내 소득자가 1인 또는 2인인 6가지 경우의 평균 보장률을 나타낸다. 그 외에 초기순소득보장률(net rate of replacement-initial), 장기순소득보장률(net rate of replacement-long term), 60개월 순소득보장률(net rate of replacement-60 months) 등이 있으나 주성분분석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 자료의 제약으로 제외된 국가로는 동구권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가 있음.

2. 개별 자료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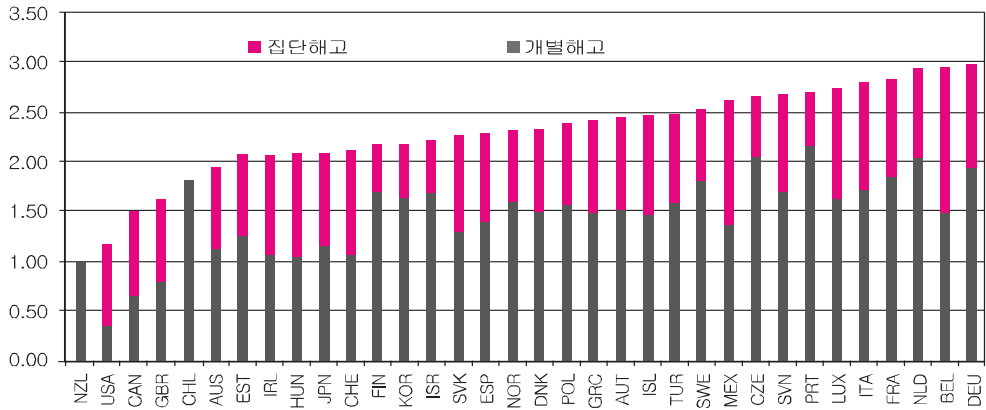
(1) 고용보호

- ▶ 고용보호법제(EPL)¹³⁾로 측정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
 - 우리나라 정규직의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개별적인 해고에 대한 보호는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보호는 1.63으로 OECD 평균 1.45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
 - 반면,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는 0.54로 OECD 평균 0.83에 비해 낮은 수준
 - 양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2.17로 OECD 평균 2.29와 유사한 수준
 - 우리나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파견 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는 0.38로 OECD 평균 0.91에 비해 낮은 수준
 - 그러나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는 2.17로 OECD 평균 1.26에 비해 상당히 높고 OECD 34개국 중 터키(2.83)에 이어 2위
 - 고용보호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이나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높음.
 - OECD 국가 간 고용보호 수준은 임시직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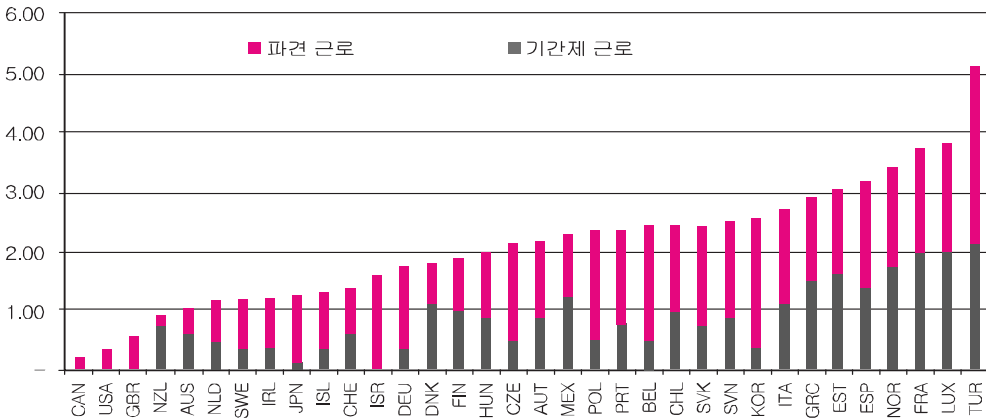
13) EPL의 경우 총 34개국 자료가 가용하여 주성분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일지라도 개별 자료의 분석에는 포함시켰음.

[그림 10] 정규직 및 임시직 고용보호지수(OECD 회원 34개국)

(정규직)



(임시직)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3

(2)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실업률은 반대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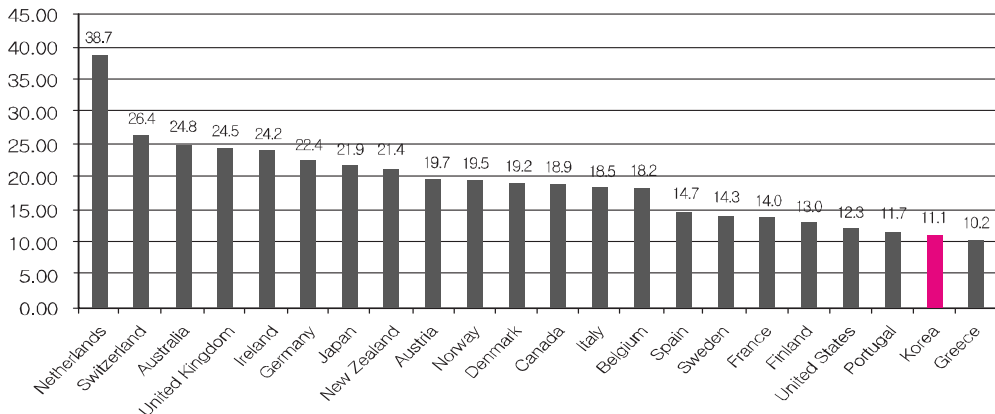
- 파트타임 비중으로 측정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
 -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의 필요에 따라 단시간근로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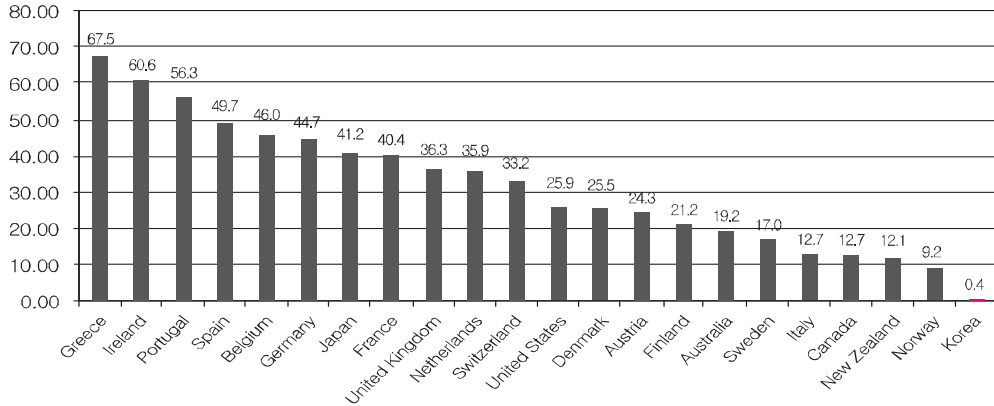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의 38.7%가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11.1%)는 그리스(10.2%)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타임 비중이 낮은 국가
 - 근로계약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파견 등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사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파트타임 사용 비율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임.
- 장기실업률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호가 강해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기존 취업자가 현재의 일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노동흐름(labor flow)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실업을 벗어날 확률이 낮아짐.
 - 결과적으로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장기실업률(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상승함.
 -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2013년 0.4%로 비교대상 22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
 - 따라서 장기실업률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자는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구직활동을 지속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서 장기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야 함.

[그림 11]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

(파트타임 비중)



(장기실업률)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3

(3)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개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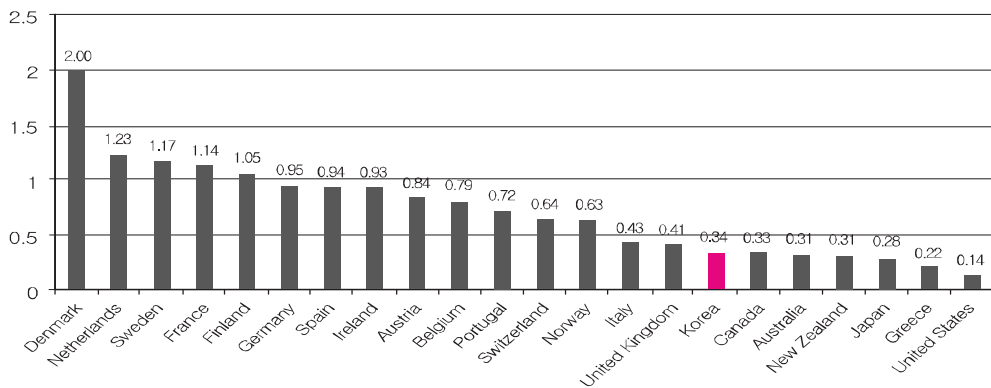
▶ 평균 이하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관련 정부지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실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실업기간을 단축하여 실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음.
 - 덴마크(2.00%), 네덜란드(1.23%), 스웨덴(1.17%), 프랑스(1.14%) 등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지출을 보임.
 - 한편,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장기실업이 낮은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은 캐나다(0.33%), 뉴질랜드(0.31%), 미국(0.14%) 등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을 보임.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GDP의 약 0.34%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 22개국 중 16위로 평균 0.72%에 비해 낮은 수준
 - 단, 금융위기 이후 모든 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실업자의 소득안정성과 관련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음.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소득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득안정성을 제고함.
 - 북유럽 또는 유럽대륙 국가들보다 최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한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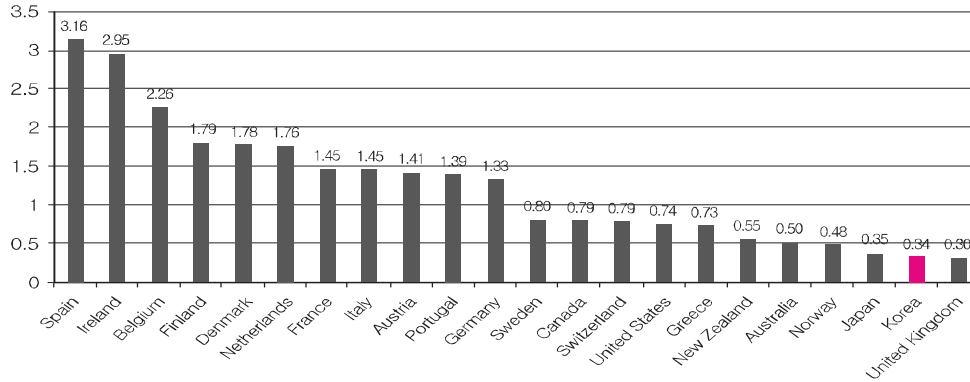
- (3.16%), 아일랜드(2.95%) 등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보임.
- 그밖에 핀란드(1.79%), 덴마크(1.78%), 네덜란드(1.76%) 등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보임.
 - 우리나라는 GDP의 0.34%를 실업자의 소득보전에 사용하였지만 비교대상국 평균 1.2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 낮은 실업보험 총소득보장율(gross rate of replacement) 역시 안정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실업보험의 총소득보장율이 높을수록 실업자의 소득안정성이 제고됨.
 - 실업보험의 총소득보장율은 아일랜드(42.5%), 포르투갈(39.1%)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 외 스웨덴(37.5%), 네덜란드(33.3%), 덴마크(32.1%)로부터 미국(22.6%), 캐나다(13.6%), 일본(12.1%), 이탈리아(11.0%) 등 다양하게 분포
 -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소득보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이 낮은 소득보장율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총소득보장률은 8.7%에 불과해 비교대상 22개국 평균 25.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 소득보장률이 55%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총소득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실업보험의 보장기간이 짧은 것에 기인

[그림 12]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개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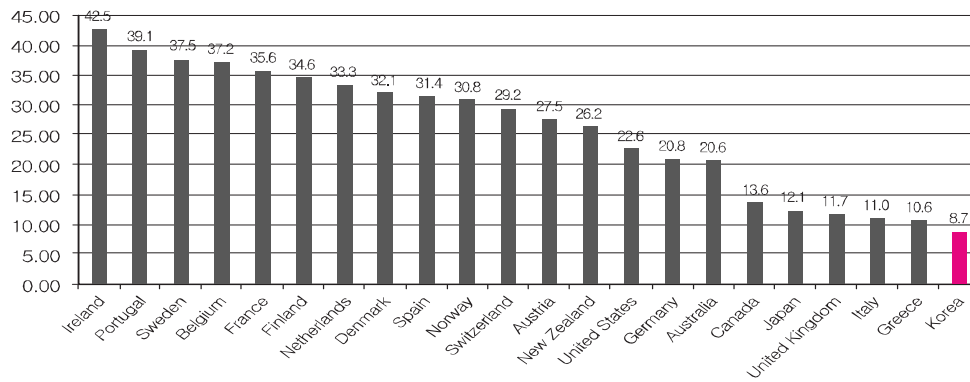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



(총소득보장률)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0~2013

(4) 주성분분석 결과

▶ 2개의 주성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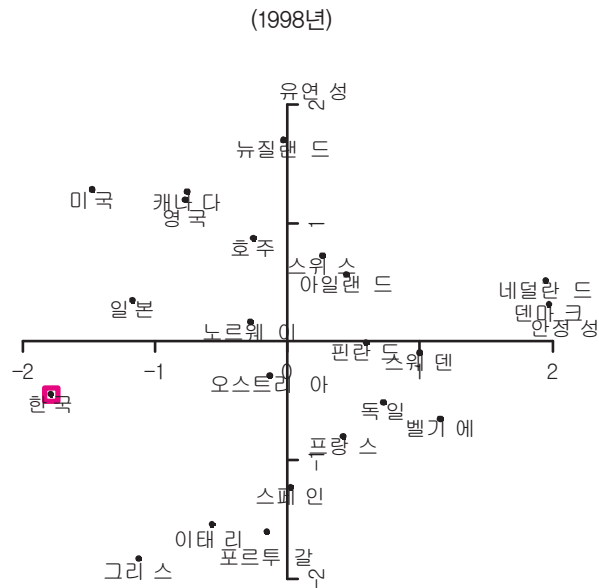
- 1998년부터 2013년 사이 OECD 22개국 자료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유연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주성분(PC1, PC2)을 도출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주성분 도출¹⁴⁾
- 첫 번째 주성분(PC1)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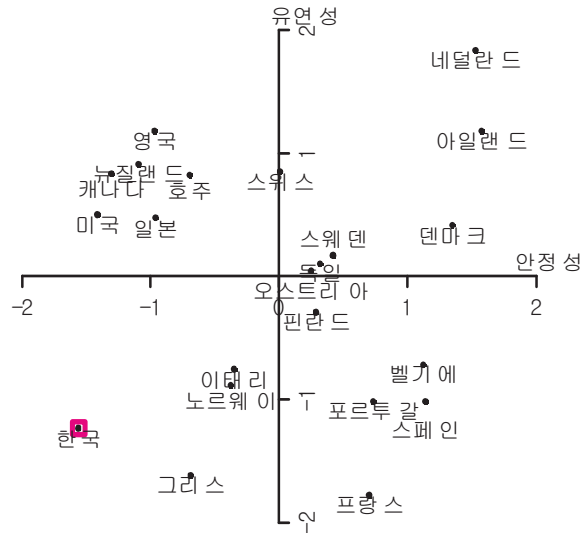
14)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tion) 및 주성분의 개별 요소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소부하(factor loading)의 총분산(sum of variances)이 최대가 되도록 주성분의 축을 회전하는 varimax rotation 적용

-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OECD 주요 22개국 평균 이하
-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북유럽형이나 유럽대륙형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도입범위의 확대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련법 및 제도의 상당부분이 개정된 것이 기인
-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부족한 상태를 반영하여 안정성은 최하위권
- 고용보호는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므로 직업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3] 유연성 및 안정성(1998년, 2013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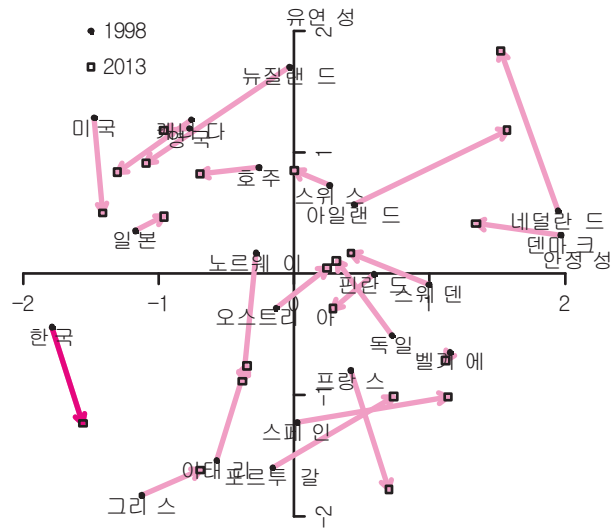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바탕한 저자의 계산 결과

▶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 2013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변화가 특징적임.
- 2013년에도 1998년과 유사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
- 북유럽형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안정성이 약간 하락하는 대신 유연성은 크게 개선됨.
- 아일랜드는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 그 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도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낮으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 안정성은 소폭 향상된 반면 유연성은 크게 하락하여 프랑스,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권
- 특히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지난 15년간 안정성의 향상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의 개선이 미미함.

- 상대적 고용보호의 상승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가 유연성 및 안정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개별 자료의 변화에 의하면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의 상승이 유연성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됨.
- 또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여전히 부족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4]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1998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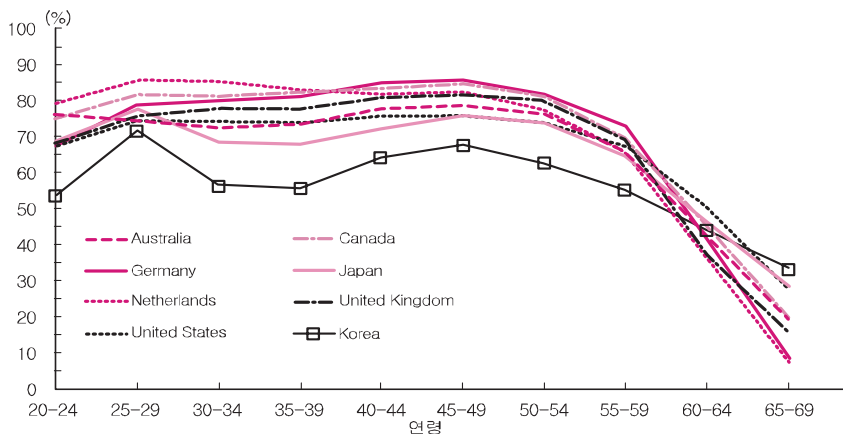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자료에 바탕한 저자의 계산 결과



IV. 시사점

- ▶ 고용선진국의 노동시장 현황에 비추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은 첫째로 25~54세 여성의 낮은 경활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11~13%p 낮음.
 - 이는 한국 여성의 경활율이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폭 꺼지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을 보이기 때문
 - M자형 생애주기 패턴은 OECD 고용선진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한국과 일본 고유의 현상임.
 - [그림 15]를 살펴보면, 일본에 비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훨씬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상기

[그림 15] OECD 고용선진 7개국과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활율(2012)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2012

▶ 두 번째 취약점은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경활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의 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음.
- 이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의 증가¹⁵⁾와 청년층의 질 낮은 일자리 기피 현상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채워졌기 때문
- 고령층의 높은 경활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¹⁶⁾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소득취약 고령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의 확대 및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세 번째 취약점은 낮은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약 13%p 낮음.
- 여성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
-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역시 같은 원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마련이 필요

▶ 지난 15년간 근로자보호를 위해 취해 왔던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만 크게 훼손하고 안정성 개선은 미흡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998년 OECD 주요국 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
- 그러나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상황
-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비교 대상 22개국 중 여전히 최하위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1998년 OECD 22개국 중 최하위
- 지난 15년간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소폭 향상되었으나 2013년에도 여전히 OECD 22개국 중 최하위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유연성이 크게 하락했으며 안정성 개선도 미흡

15) 이진영(2014), “소득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슈보고서

16) 이진영(2014), “소득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슈보고서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다양한 근로형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어 유연성 하락
 -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시행했으나 이 또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해당
 - 그 결과 풍선효과로 인해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하락
 - 따라서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 개선은 미흡
-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의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정책 필요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대한상공회의소(2009), “노동유연성 국제비교”, 대한상공회의소
-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08-21
- 박준성(2009), “임금의 유연화 정책”,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II』, 제3장,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진영 (2014), “소득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슈보고서

[해외문헌]

- Venn, D. (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89
- Wilthagen, T., and Tros, F. (2004),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fer*, 10(2), pp.166-186.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日本 總務省 統計局(2009), 『平成 21年 勞働力調査』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 Japan Statistics Bureau, <http://www.stat.go.jp>
- OECD Employment Policies Homepage(www.oecd.org/els/employment)